

“파업 명분없다” 민노총 노조원 109명 복귀

광주시내버스 파업 사흘째

한국노총과 갈등 빚은 듯
조만간 파업 타결 가능성
광주시, 복귀 운전원 배치
운행률 85%로 높이기로

파업에 참여했던 광주시내버스 노조원 중 민주노총 소속 운전원 109명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25일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시내버스 운전원들 사이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장외와 우회를 낳았던 버스 파업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주노총 버스기사들, “파업 중단, 일터로 복귀” 선언=민주노총은 소속 시내버스 노조원 109명이 26일 새벽 4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파업을 철회하면서 “파업을 주도한 한국노총 지도부가 주장하는 임금인상 요구안(5.29%)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소속 노조원만 쟁기는 등 일부 한국노총 지도부의 잇속 쟁기로 변질되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버스기사들의 업무 복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애초 이번 광주시내버스 파업엔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조 소속)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소속)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1309명이 참가했으며, 양대노총 노조원 수는 각각 1200명·109명이다.



시내버스 파업 사흘째인 25일 오후 광주 시내버스 노조원 700여명이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해소,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선언에도, 시내버스 운전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버스 운전원들이 파업 명분을 문제 삼으면서 파업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파업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파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전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복귀자만도 14명 가량 된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한국노총 소속 지도부는 노조원들에게 “한 사람이 흔들리면 노조가 위험하다.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탈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업체, 노조간 조속히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운행대수 증가=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부터 복귀한 노조원들을 시내 노선에 집중 배치, 평소 운행률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파업 사흘째인 이날 현재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930대 중 679(74%)대. 26일부터 791대(85%)까지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로 그간 운행이 중지됐던 일부 시외노선 운행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전세버스 230대가 투입될 땐 평소 운행률의 100%까지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대체 인력의 휴식도 쉬워진다. 다만, 승객들의 경우 대체 투입되는 전세버스에서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해 당분간 파업에 따른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백화점이 구두 훔친 여성 선처 호소한 까닭은

딱한 사연에 처벌 원치 않아

60대 여성이 구두를 훔쳤지만 피해를 본 백화점이 안쓰러운 사연을 듣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모(67)씨는 지난 1월 26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여성 구두를 훔친 혐의로 24일 광주서부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족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당뇨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편과 고혈압으로 시력을 잃고 쓰러진 아들을 먹여살려야 했다

는 것이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50만원의 연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생활하던 이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급한 마음에 신세계백화점 1층 행사매장을 찾아 점원이 바쁜 틈을 타 구두 한 켤레를 훔친 뒤, 고객센터에서 환불받아 반찬거리를 사다 적발됐다.

신세계 백화점측은 이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겨 피해 금액도 받지 않기로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느냐며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현대글로벌비스 운송료 인하 잠정 유보

속칭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 운송업체에 불합리한 운송료 인하를 요구<광주일보 6월10일자 6면>해 비난을 받았던 현대글로벌비스가 운송료 인하 방침을 잠정 유보했다. 시기를 늦춘 것일 뿐 인하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현대글로벌비스와 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애초 7월부터 시행기로 했던 화물차주와의 ‘운송료 지불기준 변경 계획’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기존 운송료 지불기준 변경 안(案)의 경우 차량 6대를 신고 광주~목포항을 운행하더라도 5대 상차를 기준으로 운임 23만7400원(기존 6대

28만5000원)만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이대로라면 화물차주 입장에서 차량 1대를 ‘공짜’로 타송하게 된다.

현대글로벌비스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주 100여명은 월 평균 300만원(하루 3회×5만원×21일 영업)에 이르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했었다. 화물차주들은 특히 상용차 1대를 더 신기 위해 7000만원 이상을 들여 트레일러를 새로 교체한 뒤 수년간 추가 운송료를 받고 운행해오던 중 갑작스런 운송료 인하 통보를 받았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그러나 운송료 변경이 이뤄질 경우 경우 월 평균 3억원에 이르는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물차주들과 팽팽히 맞서 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농협, ‘선장 도박 물의’ 여객선사 비금농협·선원 징계 착수

해경도 운항 실태 집중 점검

세월호 침사 이후에도 여객선에 대한 안전 및 운항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광주일보 6월 16일자 1면>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선사(船社)인 지역농협 및 선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경도 운항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선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에 나서서 한편, 해

당 여객선 운항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연안여객선의 부실한 운항 실태와 관련, 신안 카페리호 선사(船社)인 비금농협을 대상으로 ▲선원 근무 관리 ▲탐승 절차 준수 ▲운항 전 안전 점검 ▲선박 고박 등 안전 점검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또 해당 선원들에 대한 징계위

원회를 개최, 지난 14일 목포~신안간 운항 중 선원들이 도박을 하는가 하면,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승선사 확인 및 화물 결속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등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농협 전남 본부에 지시했다.

비금농협은 목포~신안간 카페리호의 부실한 운항 실태가 드러난 뒤, 해당 여객선 선장에 대한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신규 선장을 채용해 운항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해양경찰도 운항 중 선원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비금농협 카페리호 선장을 입건하는 한편, 운항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책임자 징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

호남·야당 비하 글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희 원주지청장)은 24일 인터넷에서 ‘좌익호수’라는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비하 글을 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A씨를 이날 초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A씨를 소환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열라디언’, ‘홍어’ 등 표현을 사용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할 글 등의 게시물 16건, 댓글 3451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음 의원과 윤인호 광주시장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호수’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임우진 서구청장 당선인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임우진(61)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25일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 당선인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선고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는 선고할 수 있다. 임 당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해 지난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파업 불편한 이 때에... 시내버스 가로막고 행패부린 40대



○40대 남성이 버스를 가로막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등 한때 소동.

○25일 광주북부경찰에 입건된 Y(41)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송일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일곡10번 시내버스(운전자 임모·31)를

가로막고 앞 유리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렸다는 것.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받은 적이 있는 Y씨는 “버스가 나를 치고 뺨소니 하려했다”고 주장, 담당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버스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시기에, 버스 승객들은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고 혀를 끌끌. /백화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역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 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신축원룸매매 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21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 500만 (1년 6000만 수익발생)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 · 오피스텔매매(수익성)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공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09천)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09천)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역 1번 출구 2분 (울수리 전제제물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가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0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0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업)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세비없음)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불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사은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상가임대(수원지구, 북구)

▶수원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옆,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세비없음)

▶수원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해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수원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세비없음)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경기장) 보3천 월150만(식당, 카페, 당구장, 호프적합)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변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정동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가11억, 최저4억9천7, 충정로5가
- 서구 영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902㎡) 감정가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동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평도로
- 영암군 삼호읍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정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정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90만) 매매가능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십시오
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